

북방외교의 전도사 박철언 장관과 인터뷰

남측 오랜만에 기싸움에서 이겼지만 북한은 본전 치기 한 것

▶▶1면에 이어서

인 실행에 옮긴 주역이 바로 박철언 전 장관이다. 서방 뿐만 아니라 공산권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세계외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북방외교를 수행하며 42차례의 남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중 20번 북한을 밀사로 휴전선을 넘었다. 밀사는 북한에서 죽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기에 방문할 때마다 유서를 썼단다.

하지만 비난은 거셌다. '밀사외교', '용공외교' 등의 지적을 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 '가발 쓴 전두환' 등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9월 강연자 보스턴 대학을 방문한 박 전장관을 만났다. 73세의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시차로 밤새 한숨도 못잤지만 피곤함이 전혀 묻어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날짜까지 고스란히 기억하는 날카로운 기억력도 인상적이었다.

▶한반도는 목함지뢰사건으로 일촉즉발 사태까지 갔다가 대화로서 긴장을 완화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남과 북의 일종의 기싸움에서 정말 오랜만에 남측이 이긴듯 하다. 그러나

북한으로 바서는 따지고 보면 본전이 다. 우리가 특별히 얻어낸 것은 없다. 유감 표시만 했지만 북측의 도발 방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 어쨌든 북측은 실질적인 핵 미사일 강국으로 확실히 등장하기 위해 1-2년의 시간을 벌어들였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예컨대 5.24 조치 완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실속만 차리면 됐다.

북한은 핵 미사일로 무장한 나라로 서방에서도 10-2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경량화 해서 핵탄두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게 되면 미국도 핵보유 반대에서 반출 금지 관리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중국을 견제, 포위하는 C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인도까지 연결하는 C자 형 미사일 방위체제(MD)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두고 본다면 핵안보 위기는 증대되며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는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외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하는 일은 어렵다. 우리는 핵폐기가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을 하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 김정은 체제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고, 미국 일본 서방과 외교 관계를 맺어 서방의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활로를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고사 될 것이다" 라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 5.24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압박을 가해줘야 한다. 중국이 없으면 압박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연료의 90%, 북한 무역의 89% 식량 부족분의 2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작심하고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 C자형 전략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인 북한과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선이 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하고도 담판을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한 방식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박 전 장관

계속 하고 있다.

오바마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365일 상시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핵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담판을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핵심 국으로 인정해서 중국 태평양 진출을 용인해서 미국의 MD체제를 완화하는 수정 전략을 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승절 행사 참석 및 열병식 참석으로 친중국 외교를 강화했다. 10월 중순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외교 강화에 대한 담례로 선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드배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딜레마에 처하지 않겠는가.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직은 우리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돈을 들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 담판해야 한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 한 것이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펄 & 셋팅 펄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펄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에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에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방외교의 전도사 박철언 장관과 인터뷰

북방외교 우리의 외교 지평, 경제 지평 그리고 국민의 활동무대도 넓혀

▶▶2면에 이어서

아니냐. 중국이 북한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서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이 저지되지 않으면 한국 자체 핵개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오바마와도 치열하고 조용한 담판을 벌여야 한다. 모든 것을 통틀어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남북은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키지는 못해왔다.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이니 동일 통일의 모델이니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점점 자극하는 이야기다. 북한 체제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1989년 9월 11일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이야기 했다. 평화롭게 공존하며 내정 간섭없이 남북 연합을 이뤄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런 접근과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한 통론 결단을 해야 한다. 남북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이다.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

으로 핵을 폐기하고 중국과 미국에 압박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어언 25년이 지난 지금 재평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사실상 먼 훗날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방정책의 입안자로서 왜 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됐는가. 또 한국의 보수층의 반대, 미국의 압박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우리 정부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혔던 유일한 정책이다. 100여개 서방 자본주의 국가만을 상대로 한 반쪽 외교에서 전세계를 공산권 39개 나라와 전방위 외교를 추진한 정책이다.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와 수교를 필두로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의 외교지평, 경제 지평은 물론 국민의 활동 무대도 넓어졌다. 중국의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노태우 시대는 재평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북방정책의 또 한가지는 대북포용 정책이었다. 대북밀사로 20여차례 북한을 넘어가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



박근혜 정부의 중국 전승절 참가는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박전 장관. 9일 강연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화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당시 미국에서는 너무 앞서간다고 은근 슬쩍 우리를 견제했다. 극우 보수층도 대단히 반대했다. 당시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박철언이 용공외교, 말사외교, 밀실외교를 한다고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제가 즐기치게 할 수 있었기에 그 대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이 친중

국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 동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전승절 열병식 참가 결정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까워 지지 않으면 안된다. 남한과 미국의 튼튼한 유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어서 남측 주도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통일되는 것을 중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친미 정권이 자기를 향해 미사일을 대고 있으면 바로 안보상

의 위해를 느끼기 때문이다. 6.25 전쟁 때 인민군 수십만명이 내려온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북한의 주요 항만자원 지하자원은 중국에게 50년, 100년 임대차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의 국민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 가서 골치 아픈 북한보다 남한하고 협조해서 통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통일은 이뤄질 수 있다. 통일 외교의 측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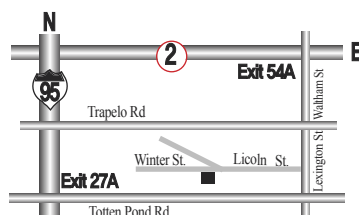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박철언 5.24조치 해제해야 북한과 대화

BUM 콘서트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 결단 촉구

한국 3중고에 빠져 있지만
지도층 위기 실감을 못해



갈등 조정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박 전 장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박철언 전 장관은 한국의 안보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 위기 등 3중고에 빠져 있지만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도 위기의 실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대학 이유택 교수가 마련한 M 콘서트에서 박철언 전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준비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대화의 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9일 BU 경영대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50여명의 학생들과 한인들이 참가해 강연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친미 일변도의 보수층이 대북 및 동북아 외교를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1국 패권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중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친중 인사를 대거 중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은 “박대통령이 북한, 미국, 중국과 담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학생들에게 “세계 정세와 한반도 동북아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라고 주문했고, 도덕성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통합력을 기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사철을 겸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권했다.

보스톤에서 있다 외로워서 2년을 못 채우고 1년 반만에 한밤중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갔다는 박 전 장관은 강연 말미에 자신의 자작시 <바람이 잠들면 말하리라> <오 백두여>,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유치환의 <행복> 등을 낭송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최소령 군은 “강연 내용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분 자체가 멋있었다. 많이 닮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나연 양은 “최근 북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강연을)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고 제가 많이 몰랐구나 하고 많이 배웠어요. 유익했던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서강대 가을 동문회 동북부 연합 모임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강대 보스톤 동문회는 올 가을 동문회를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지역 동문들과 함께 모여 연합동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뉴욕 동문회 주관으로 뉴저지 크라운 프라자 잉글우드에서 열리는 이번 연합동문회는 10월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진행된다. 토요일 낮에는 골프대회 및 뉴욕 관광 시간을 갖고 밤에는 저녁 만찬 및 여흥 시간을 갖는다. 이후 12일에는 아침을 함께 한 후 해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가을 모임을 위해 4개지역 동문회는 지난 8월부터 구체적인 모임계획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문회에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2인 1실 숙박요금 \$149+세금과 회비 \$150(골프 관광 점심+만찬 포함)로 1인당 \$230-\$310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이수범 동문회장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동부지역에서 처음하는 모임이고 뉴욕 동문회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신 만큼 그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하고 “9월 중순까지 참석여부, 참석인원, 프로그램 선택등을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subomrhee@gmail.com로 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총영사관 민원실 확장 공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9월초부터 영사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 공간을 확장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영사관은 현재 영사관 공간을 옆 사무실까지 합쳐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말까지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민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 오진관 영사는 “금번 공사로 인해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동포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그동안 영사관 보스톤 다우타운 이전 등 여러 가지 영사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시도해왔으나 결국 주차가 편리하고 차로 접근이 쉬운 현재의 공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17기 첫 전체회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보스톤 지역 협의회(회장 한선우)는 지난 9월 6일 제 17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한선우 회장 자택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총 30여명의 위원들이 모여 제 17기의 주요안건들을 의논했다. 회의는 황우성간사의 지난 16기 재정보고와 주요사업보고, 이어서 김현주 재무간사의 예산재정계획의 발표, 각분과

위원장들의 사업계획안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선우회장은 “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재정 감사, 보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평통위원들과의 나은 소통을 위해 자주 만남을 갖고 상의하는 17기 평통이 되자”고 다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성황리에 개최된 고려대 교우회 모듬

9월 26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s) 및 무료진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는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스톤 새생활센터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s) 및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무료 진료에서는 내과 진료를 비롯해 치과 검진, 건강 상담 외에도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내과 진료 후에는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한다. 치과는 치아 검사와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는 도착 순서대로 진행된다.

혈액검사가 필요한 검진자들은 아침을 굶고 진료에 참가하면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팀은 정확한 건강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 지수를 측정

하고 체지방검사도 실시한다.

최연호 목사는 “특별히 이번 달에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s)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말 9월 26일에는 많은 한인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s)

시간 : 9월 26일 오후 2시 ~ 4시

무료 진료 시간 : 9월 26일 오후 2시 ~ 4시

주최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781-279-3270 / 317-374-4786)

장소 : 4 Spring st. Stoneham, MA ; Boston Korean SDA Church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

벽 기자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케임브리지 MIT의 Eastgate 29층 펜타 하우스에서 모임을 갖는다

교우회는 이번 모임에서 신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고 기존 교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1년간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의논할 예정이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 고대 교우들을 2015-2016년 첫 모임에 초대한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길 바라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과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40여년 전에 설립되어 여러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친밀한 교류와 친목을 다지며 또한 보스톤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소 및 교통 문의는 이태호 (tlee0813@hotmail.com; 617-780-2999), 전인탁 (ingome22@gmail.com; 857-998-3318)로 하면 된다.

일시: 2014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6:30

장 소 : Penthouse, 60 Wadsworth ST, Cambridge, MA 02142 (MIT 기숙사 내 PH)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뷰티 인사이드〉 무료 영화관람권 당첨자 10명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칸 영화제가 극찬한 판타지 로맨스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11일 개봉됨에 따라 보스톤코리아는 이벤트 참가자 중 10명을 선정, 무료영화 관람 교환권을 증정한다.

지난 7일부터 3일간 자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기 이벤트에는 총 11명의 독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기발하거나 재미있는 10명의 댓글을 선정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독자는 보스톤코리아에서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하면 된다.

픽업은 9월 14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다.

무료 티켓 교환권은 해당 상영관 고객 서비스 창구에서 평일 티켓 2장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날짜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다.

〈뷰티 인사이드〉는 오는 11일 보스톤 다운타운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에서 상영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이벤트 당첨자〉

싱송이, 현숙한 du인, song123, 밤선비, 외유내강, 보스턴:, spryoung, always, Brian, daye, havid12, 보스턴포닥

hsb@bostonkorea.com

9월 11일 개봉 〈뷰티 인사이드〉 보아야 할 이유

칸 영화제가 극찬한 색다른 판타지 로맨스 늦여름, 명품 로맨스 영화로 흥행 돌풍 중. The Beauty Inside 영문 제목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달 20일 개봉 이후 15일 만에 15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감성 자극 흥행 다크호스로 떠오른 색다른 판타지 멜로 영화 〈뷰티 인사이드; The Beauty Inside〉가 9월 11일 보스톤에서 개봉한다.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암살과 베테랑 사이에서 현재 국내 예약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뷰티 인사이드〉에 관객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알아보자.

〈뷰티 인사이드〉는 제작 당시부터 다양한 이슈로 화제를 모았는데, 영화의 원작이 된 동명 광고로 인해 북미 및 해외에서도 〈뷰티 인사이드〉의 장편 영화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작품. '자고 일어나면 국적, 나이, 성별 구분하지 않고 모습만 바뀐다는 남자' 라는 특이한 설정으로 인텔과 도시바가 공동 제작하여 유튜브에 연재한 동명의 6부작 소셜 필름은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원작으로 광고 시장에 신선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원작을 바탕으로 주요 배우만

21인에 달하는 한국 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역대급 캐스팅으로 〈뷰티 인사이드〉는 제작 초기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칸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을 보인 〈뷰티 인사이드〉는 전세계 영화팬들에 극찬을 받았다.

〈뷰티 인사이드〉가 이렇듯 흥행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에는 제2의 '납득이' 로 불리며 새로운 씬스타일로 떠오른 조연 배우 이동휘의 공헌도 크다. 매일 얼굴이 바뀌어 삶을 자포자기했던 주인공 '우진' 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상백' 역할로 분한 이동휘는 '우진' 에게 건네는 재치있는 입담과 감춰 말하는 연기로 〈건축학개론〉에서 남자주인공에게 깨알 같은 연애 상담을 해주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조정석과 비교되며 제2의 '납득이' 로 불리우고 있다.

또한 21명의 주연 배우다. 〈노다메 칸타빌레〉로 한국내에서도 커다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 배우 우에노 주리를 비롯, 연기파 배우들과 대세 배우들인 이범수, 김주혁, 김희원, 김상호, 천우희, 고아성, 박신혜, 이진욱, 이동욱, 유연석, 서강준, 박서준, 이현우 등 주요 배우들만 21명이 캐스팅 되었다. 주요 배우들은 그가 사랑한 여자 '이수' 로 열연한 한효주와 모두 환상의 케미를 선보이며 초가를 문턱에서 관객들

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화 〈올드보이〉, 〈설국열차〉 등의 타이틀 디자인을 맡았고, 광고와 뮤직비디오 분야에서 이름이 높은 백감독이 디테일하게 연출한 수려한 영상미가 볼거리다. 특히 우진과 이수의 독특한 사랑을 몽환적으로 담아낸 미장센 등이 관객들의 감성을 제대로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매력 포인트 하나는 바로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감미로운 OST. 〈뷰티 인사이드〉의 전반적 분위기를 이끄는 영화 속 음악은 영국 밴드 Citizens의 "True Romance" 라는 곡으로 톡톡튀는 멜로디와 영화 메시지에 부합하는 가사로,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되어 남녀 주인공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1920년대 작곡되어 여러 아티스트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Ampapola' 는 남녀 주인공의 공동적 취향을 확인하는 음악으로, 또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특유의 애잔한 분위기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 곡이다.

Facebook.com/HitKmovie 및 thebeautyinside-themov-ie.com을 통해 자세한 영화 정보 및 상영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암살 올해 북미 개봉 한국영화 흥행 1위

북미 개봉 외국 영화중 3위 성적 LA 등지에서는 장기 상영 돌입 한국에는 역대 흥해 6위 진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영화 <암살>이 북미에서 5주째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개봉 후 2주만인 지난달 7일 북미 개봉이 이루어진 <암살>은 최고의 영화로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 4주차 주말인 지난 달 30일까지 약 153만 달러(약 1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북미 배급사인 Well Go USA가 밝혔다.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Box Office Mojo)에 의하면 2015년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톱3를 차지하는 놀랄만한 성과다. <암살>은 개봉과 동시에 올해 북미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개봉 첫 주 흥행 성적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했던 <연평해전>의 세 배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이러한 흥행세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암살>의 북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Pan Media & Entertainment 측에 따르면 지난 4주간의 북미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평일 낮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도 80%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으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프라임 타임 및 주말 상영 티켓들은 빠르게 매진되었다.

LA와 같이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 근처에 위치한 <암살> 상영관들은 금주 주말 티켓이 전 주말에 매진되는 놀라운 흥행 기록들을 보였다. 이런 인기에도 힘입어 <암살>의 상영관은 AMC, Cinemark, National Amusement 등 북미 메이저 극장 체인들은 <암살>의 상영을 지속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암살>은 장기 흥행 레이스에 돌입했다.

Pan Media & Entertainment 측은 재미와 감동이 검증된 웰메이드 영화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 및 단체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고, 미국에선 이례적으로 영화를 두 번 세 번 다시 보는 재관람객층이 눈에 띄게 많은 점을 장기 흥행 요소로 꼽았다.

다. 팬 미디어 측은 흥행 한국 영화로 입소문이 나면서 백인 및 아시아 관객들의 관람율도 타한국 영화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보스톤에서는 지난 7일 개봉해 3주만인 20일 종영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매진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지만 심야 및 주간 상영시간에는 비교적 관객이 적어 한산한 느낌을 주었다. 팬 미디어 측은 보스톤 재개봉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

한편 <암살>은 올해 최고 흥행 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한국에서도 북미에서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암살>이 누적관객 1,234만명으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넘어 역대 영화 흥행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개봉 7주차에 접어든 <암살>의 흥행세가 <7번방의 선물> (1천 281만 1천 206명), 최동훈 감독의 전작 <도둑들> (1천 298만 3천 330명)의 기록마저 넘보고 있어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암살>의 최종스코어로 모아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지난 3일 프로암 대회에서 경기를 마치고 같이 참가한 플레이어들과 악수를 나누는 배상문

도이체뱅크 챔피언십 한국선수들 마지막날 부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지난 7일 막을 내린 도이체뱅크 챔피언십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날의 강한 바람과 무더운 날씨에 밀려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대회 3일째까지 8언더로 공동 10위에 올랐던 대니 리는 마지막날 7타로 부진해 함께 2언더를 기록하며 공동 33위(152점)로 밀려났다. 군입대를 앞둔 배상문도 이날 75타로 부진한 바람에 함께 1언더로 공동 39위(128점)에 이름을 올렸다

. 케빈나도 74타로 함께 2오버파에 머물렀다. 공동 60위(44점).

이날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리키 파울러가 68타를 기록하며 뒷심을 발휘해 전날 1타 차이로 뒤지던 헨리 스탠슨을 꺾고 총 15언더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날 우승으로 리키 파울러는 8백 25만 불의 상금은 물론 페덱스컵 2000 포인트를 획득 22위에서 3위로 급상승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야외미사 안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에서는 오는 9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피츠버그에 위치한 사이마 공원에서 야외 미사를 갖는다.

이번 야외 미사에서는 초, 중, 고 등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 및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성인들을 위해서는 배구, 족구, 축구, 배드민턴 등의 시합이

별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17-558-2711, 또는 이메일 office.kc-cb@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일시: 2015년 9월 20일 일요일 오전 10:30

▶장소: 사이마 공원 (The Finnish Center at Saima Park, 61 Scott Rd, Fitchburg, MA)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TV패드, 방송 3사에 6600만달러 배상하라" 연방지법 판결

저작권 침해 소송 일단락
기기 설치 한인들 추가소송 당할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실시간 무료 시청 셋톱박스인 'TV패드'의 제조·판매사와 LA 한인 유통업자는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에 따라 이 TV 패드를 설치한 개인을 비롯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은 향후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의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 중부지법 개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KBS 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방송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민사소송 재판에서 "TV패드 제조사인 '크리에이트(Create)'와 유통업체 '화양(Hua Yang)'은 6531만 5954달러를 배상하라"고 2일 판결했다. 클라우스너 판사는 미주 지역 유통업

체 미디어 저널의 송두현 대표도 방송 3사에 144만556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총 배상금액은 6676만1514달러다.

KBS측은 "이번 판결은 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유통업자에게도 배상을 책임지게 한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6월 2일 방송 3사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 TV패드 저작권 침해 논란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방송 3사가 고용한 전문가가 기기마다 배정된 고유 IP 주소를 취합한 결과 미주지역에만 1만9677대가 팔렸다. 추후 방송 3사가 확보한 IP주소를 바탕으로 TV패드 소비자 상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 기기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미주 유통업자인 송 대표가 지난해 초부터 LA한인타운 내 대형 빌보드판에 대대적으로 TV 패드를 선

전하면서 불거졌다. '월 추가 사용료 없이 289달러만 내면 한국 3사 방송 등 144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한인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졌다.

방송 3사는 공동 대응에 나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의 판매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를 비롯한 TV패드 판매업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TV패드 기기 자체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려받는 앱 유형에 따라 국제전화나 게임기 등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TV패드란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TV패드를 다수 사용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최근에 오픈한 수불의 네번째 매장인, 판교현대백화점 매장 전경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

▶▶1면에 이어서

진출을 필두로 브릭, 마리, 오리 등의 한국 음식이 보스톤에 진출하게 될 예정이다.

박성종 대표는 이 같은 한식당들의 보스톤 진출을 유도키 위해 한국을 방문, 이들 외식업체 대표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이중 4개 업체를 선정해 진행 중에 있다.

엄성준 총영사는 김 대표와 박 대표를 만나 한국 업체들의 보스톤 진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엄 총영사는 또 "보스톤에 진출하는 한국 외식업체들이 현재 보스톤에 자리하고 있는 한식업체들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인들과 중국 관광객 등

새로운 고객층을 모색하는 경영모델을 만들어 볼 것을 주문했다.

박성종 대표는 "K Food 사업은 기존 한인상인들과 연계를 목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의 계획을 가지고, 기존 한인상인들을 일대일로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불의 김태영 대표와 BKA RD&I의 박성종 대표는 보스톤을 시작으로 미국 내의 주요 도시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K Food 관련 문의: Kfood-Boston@gmail.com

hsb@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그릴 없이 맛있게 스테이크 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고기는 불맛’이라는 불변의 법칙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집집마다 그릴을 갖추고 조리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조리법이 단순한 요리일수록 좋은 재료의 선정과 조리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스테이크가 딱 그렇다. 완벽한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크게 5가지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좋은 재료, 시즈닝, 시어링, 베이스팅 그리고 레스팅 타임. 멋진 그릴 없이도 육즙이 가득 찬 스테이크를 한번 구어 보도록 하자.

▶ 좋은 재료 고르기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스테이크에 적합한 고기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고기 부위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소고기가 들어가는 요리는 조리법과 조리시간에 따라 사용하는 부위가 달라진다. 즉, 육질이 연하고 조리 시간을 짧게 해야 맛있는 부위가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 알맞다. 기름이 많고 부드러운 부위를 좋아한다면 립아이(Rib-eye, 꽃등심) 부위를,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텐더로인(Tenderloin, 안심) 부위를, 꽃등심부위보다는 담백하나 지방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고기를 좀 씹어보고 싶다면 스트립(Strip)이나 서로인(Sirloin, 채끝살)을 구매하면 된다.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면, 알목심인 척 아이 롤(Chuck Eye Roll)도 괜찮다. (소고기 부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난 주 기사 ‘보스톤 초보 주부를 위한, 영어로 의

하는 소고기 부위’를 참고하자.)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였다면, 두께를 살펴봐야 한다. 스테이크용 고기는 무게가 아니라 두께로 사는 게 좋다. 겉은 바삭하게, 안에는 육즙이 가득하게 먹어야 맛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3cm이상으로 두꺼운 고기를 사도록 하자.

▶ 시즈닝(Seasoning) 하기

기본적으로 시즈닝은 소금과 후추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고기를 언제 구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지금부터 40분 이후에 고기를 구울 예정이라면 미리 시즈닝해 둔다. 그러나, 40분 내에 구울 거라면 굽기 직전에 시즈닝하는 게 좋다. 시즈닝을 하면 삼투압현상 때문에 수분이 빠져 나온다. 그러면 팬을 아무리 뜨겁게 달군다고 해도 팬의 열이 수분을 날리는 데 쓰여서 시어링(Searing)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굽는 동안 기름이 많이 튀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40분이 지나면 빠져나갔던 수분과 소금이 다시 내부 깊숙이 침투해 고기 안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시어링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참고로 시즈닝을 언제 하든 구울 고기는 냉장고에서 바로 나와 너무 차가운 상태면 안 된다. 시어링은 온도가 중요한데, 고기의 찬 기운이 팬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 센 불에서 시어링(Searing) 하기

완벽한 스테이크를 위한 두 번째 노하우는 시어링이다. 야채나 과일 등이

골든 브라운을 띠며 캐러멜라이즈가 되는 것처럼 고기가 골든 브라운으로 변하는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이라고 하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도록 센 불에서 노릇하게 굽는 과정을 시어링이라고 한다.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의 풍미와 크리스피한 텍스처를 더욱 살려준다. 이 반응은 섭씨 155도 이상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팬이 충분히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디움 레어로 굽는다고 가정하고 고기를 구워보자. 불과 가까운 곳에 레스팅 타임 때 고기를 쉬게 할 접시를 놓아 따뜻하게 해 주자. 두꺼운 팬을 올리고 센 불에서 약간 흥건한 정도의 기름을 두르고 달군다. 기름을 충분히 세 바퀴 정도 돌리는 느낌으로 뿌리면 된다. 팬이 충분히 달궈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게로 고기를 집고 팬에 살짝 넣을까 말까 해봤을 때 ‘치지지지직’ 소리가 나는지 확인 하면 된다. 센 불에서 기름이 골고루 묻게 해주면서 굽는데, 모든 면이 골든 브라운이 되도록 바삭하게 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수시로 뒤집어 주면서 굽는다. 소고기는 한 번만 뒤집는다거나 여러 번 뒤집으면 안 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그릴이 아닌 팬에서 구울 때에는 마음껏 뒤

집어야 한다. 모든 스테이크의 겉면은 노릇해야 하나, 의도한 스테이크 굽기 정도에 따라 시어링을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레어로 구울 거라면 시어링에서 색을 다 내고 불을 줄여 속만 따뜻하게 해준다. 미디움 레어는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만 굽는다. 속을 익히는 동안에 겉도 더 익기 때문이다. 반면 웰던으로 먹을 사람은 시어링을 덜 해줘야 약한 불에서 오래 익혀도 겉이 타지 않으니 참고하자.

▶ 불을 줄이고 베이스팅(Basting) 하기

고기의 모든 겉면이 노릇해졌다면 중간불로 줄이고 원하는 굽기 정도에 맞춰 익혀야 한다. 베이스팅 과정이란 팬을 살짝 기울여 기름을 스푼으로 떠서 고기의 중심에 끼얹어주는 것인데, 끼얹고 뒤집고를 반복해야 한다. 베이스팅을 하면 고기가 촉촉해지고 육즙도 풍부해진다. 단, 레어로 하고 싶은 사람은 베이스팅 과정을 건너뛰면 된다.

원하는 정도로 거의 다 구워졌을 때, 고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버터 30g을 넣는다. 고기에 고루 버터가 묻게 하면서 베이스팅 한다. 단, 버터로 오래 베이스팅을 하면 타기 쉬우므로

버터를 끝내기 2분 전쯤에 넣어 풍미만 준다는 느낌으로 한다.

▶ 레스팅 타임(Resting Time)을 준다

완벽한 스테이크를 위해 고기에게 레스팅 시간을 주자. 이름 그대로 고기를 구워 팬에서 췌 다음 잠깐 휴식하는 시간이다. 동물성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수축한다. 육즙이 한쪽에 모이게 된다는 말인데, 췌 시간 없이 접시에 올라가서 잘리면 모여 있던 육즙들이 짙혀 러버된다. 우리가 먹어야 할 맛있는 육즙을 접시에 양보하는 셈인 거다. 레스팅 시간을 주면 수분이 천천히 골고루 퍼져 육즙을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다. 즉, 베이스팅까지 마친 고기를 팬에서 꺼내서 따뜻하게 준비해 놓은 접시에 올린다.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준비해 놓거나 요리 하는 동안 미리 빈 접시를 불 가까이 놓아두면 편하다. 보통 5-10분 정도 레스팅 시간을 주는데,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레스팅 타임으로 보면 된다. 스테이크가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고기를 구웠던 가스레인지 위나 호일로 감싸서 보호해줘도 좋다.

htj@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팔, 무릎 통증질환
- 유선, 안면마비, 어지럼, 메니에르 증후군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만성 편두통, 두통, 목통증
- 요통, 허리, 관절, 근육, 관절염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 당뇨, 고혈압, 비만, 당뇨, 당뇨합병증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김동원치과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아이디어 상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개발함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백 투 스쿨 아이디어 상품들을 소개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아이들에게 선물로도 좋을 듯하다.

▶ 연필, 싹을 틔우다 - 스프라우트 펜슬(Sprout Pencil)

이름을 듣고 '몽당 연필이 다시 자란다?' 하며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아쉽게도 아직 몽당 연필을 다시 자라게 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짧아진 연필을 화분이나 흙에 꽂아 물을 주면 새싹이 돋아나는 연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더욱 흥미로운 건 바질에서부터 로즈마리, 타임, 민트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허브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쓸모 없게 된 몽당 연

필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도 느끼게 해줄 좋은 선물이 될 듯 싶다. 덴마크 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아마존을 통해 8자루가 들어간 허브 연필 한 세트를 19.95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www.sprout-world.com

▶ 미니 식탁보로 변신하는 도시락통 - 플랫폼박스 런치박스(Flatbox Lunchbox)

번거롭게 식탁보를 따로 챙겨갈 필요 없이 도시락통만 짝 펼치면 일인용 식탁보가 된다. 학교 식당 등 공공장소의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전염성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지 잘 알려진 만큼, 건강을 위해서도 유용한 아이템이



다. 사이즈는 스낵용(Snack), 레귤러(Regular), 라지(Large) 세 종류가 있고, 레귤러 사이즈의 경우 보통 24.95 달러에 판매되나, 현재 19.95달러로 세일 중이다.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http://www.flatbox-lunchbox.com/default.asp>

lock) 버튼이 뜨게 되는 원리이다. 또한 이미 자물쇠 내에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더 손쉽게 열수도 있다. 49.9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http://www.thequicklock.com/>

▶ 블루투스를 통해 컨트롤하는 스마트 자물쇠 - 퀵락(QuickLock)

열쇠나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앱과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열수 있는 자물쇠이다. 아이폰 혹은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페어링 한 뒤 앱을 띄워 자물통 걸쇠 부분을 손으로 꺾 돌려주면 스마트폰에 연락(Un-



▶ 자전거 도난 방지 경보기- 햄마커 스마트폰 알람(Hammacher Smartphone Alarm)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할 아이템. 특히, 자전거 도난이 심해지는 새 학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자전거 좌석 아래 손쉽게 장착할 수 있고 도난시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며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판매 가격은 59.95달러이며 <http://www.hammacher.com/Product/Default.aspx?sku=87063>에서 보다 자세한 상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htj@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할부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가나로임 기자.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근무하는 중임(MBA)을 마치고 다녔던 FORTUNE CAMBRIDGE 지역이서 가장 성공적 각 지역대리인 칭찬, 인정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실업률 4대 높을 때에도 17% 이상의 가나로임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험은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제가 사임제 혜택을 받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895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969-4895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80 sqft
Harvard Ave 근처, 미팅, 한마루, 사물 보관함, 현관대에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9 sq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교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가목외 정학,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rengram

노스이스턴 대학, 9년만에 대학 순위 하락

MA주 대학 50위 내에 7개 학교
하버드는 2위, MIT는 7위에 랭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년 유에스 뉴스(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에서 최근 수년 동안 가파르게 순위가 상승했던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이 2016년 순위에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발표된 대학 순위에서 노스이스턴 대학은 2015년 순위에 비해 5단계가 내려갔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가장 최근 발표된 대학 순위에서 미국 내 종합대학 중 47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대학 중 미국 내 상위 50위 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노스이스턴 대학만이 순위가 하락했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2007년 순위에서 미국 내 대학 중 98위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까지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했고 한 번도 순위가 내려간 적은 없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조셉 아운 총장은 대학 순위가 연연하지 않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에듀 프로그램(교실에서의 수업과 실제 회사 경험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운 총장은 “우리는 한 번도 순위를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다” 며 “순위는 그저 부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 내 최고 대학의 위치를 고수했고, 하버드 대학(2위)과 MIT(7위)가 매사추세츠 대학 중에서는 10위권에 들었다. 뒤를 이어 텡스 대학(Tufts University)은 27위,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가 30위를 기록했고,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은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 순위에서 노스이스턴 대학과 공동 42위를 기록했던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은 올해 순위가 소폭 상승해 41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매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대학 중 11개 대학이 미국 내에서 우수한 203개 대학에 선정되었다.

종합대학 순위와는 별도로 순위가 매겨지는 리버럴 아트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Williams College)가 1위를, 그리고 앰허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가 2위를 기록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대학들이 미국 내 최고 리버럴 아트 대학 자리를 차지했다.

jsi@bostonkorea.com

대학교	2016 순위	2015 순위
Harvard University	2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7	7
Tufts University	27	27
Boston College	30	31
Brandeis University	34	35
Boston University	41	42
Northeastern University	47	42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57	68
Clark University	75	76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75	76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156	156

매사추세츠 소재 종합대학 순위 (출처: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교	2016 순위	2015 순위
Williams College	1	1
Amherst College	2	2
Wellesley College	4	4
Smith College	14	19
College of the Holy Cross	32	34
Mount Holyoke College	35	41
Wheaton College	67	69
Stonehill College	116	105

매사추세츠 소재 리버럴 아트 대학 순위 (출처: US News and World Report)



캠브리지, 부동산 회사에 수수료 물려 대중교통에 투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캠브리지 시 정부가 부동산 개발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부동산 개발자에게서 거두어들인 돈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캠브리지 재개발 부서의 제이슨 조그는 켄달 스퀘어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부동산 회사들에게 세금과 같은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9월 중으로 이에 대한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켄달/MIT 전철역의 리모델링 공사나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보스톤 인근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 뉴발란스는 본사가 위치한 브라이튼에 들어설 컴퓨터

레일 정류장 건설을 위해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페데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는 서머빌에 새로 건설될 오렌지 라인 전철역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

새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회사와 협상을 벌여 공사 비용의 일부를 총담케 하는 경우와 달리, 캠브리지 시는 이에 관한 조항을 의무화 하려는 것이다. MBTA는 캠브리지에서 추진되는 수수료 부과 방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MBTA는 그린라인을 서머빌과 메드포드까지 4.7마일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라인 연장 공사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은 30억 달러로 추산된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홍삼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정관장 브랜드'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FREE

- ✓기억회복
- ✓면역력증진
- ✓안면노화예방
- ✓간헐산장기능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개선
- ✓혈당콜레스테롤개선
- ✓기억력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국산 최고 이상의 뿌리 보습
농인비오오일

해로운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Old Concord Rd,
Euxton, MA 01508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트럼프 · 크루즈, 이란 핵합의는 "무능한 협상" 한목소리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트럼프 후보는 9일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 서쪽잔디에서 열린 극우 티파티의 주도로 열린 이란 핵협상 반대시위에 참여해 "이란 핵합의는 무능한 협상"이라 일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붙잡힌 미국인 4명의 송환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기간 내에 이들 4명이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해 반대시위에 참여한 수천명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협상가를 자칭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항상 협상에서 성공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내가 당선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미국의 승리에 지겨움을 느낄 만큼 많은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시위에는 크루즈 후보도 함께 참여해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면 상당한 자본이 이란 테러리스트로 흘러들 것이라며 "미국인을 살해한 지하디스트에게 수십억 달러를 보내는 데 동의한다면 손에 피를 묻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루즈 후보는 연설을 끝낸 뒤 트럼프 후보와 무대에서 포옹하며 공화당 내 '브로맨스'(bromance)를 뽐내기도 했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 합의안 반대시위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왼쪽) 미 공화당 대선후보와 포옹하는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이란 핵합의는 강력한 합의...위반시 군사대응"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에 대해 "강력한 합의"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가 완벽하거나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지만 어떠한 합의도 완벽할 수 없다"며 "이란 핵합의가 강력한 합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의 길로 앞으로 나아가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봉쇄할 기회를 잡을 수도, 아니면 이를 거절하고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로 향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는 이란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주저하지 않고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은 (핵합의안을 가지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려 나설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이란을 경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

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지체 없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대(對)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후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 임기를 마친 후 종종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는 "대통령과 나는"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핵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이란 핵협상을 지난 7월 마무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와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 불승인을 무력화하는데 필요한 상원의원 수를 확보함에 따라 합의안 인준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양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이란 핵합의를 두고 대결을 벌였다.

findlove@news1.kr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9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vensworth,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Bliss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당신의 개성과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월, 화 스페셜: Cut 남\$15/여\$25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시술 지도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초저금리 시대 종료...회사채시장 '직격탄' 불가피

금리인상으로 차입비용 늘어 연쇄 디폴트 우려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미국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앞두고 회사채시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8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최대 호황을 누려온 미국 회사채시장의 디폴트 위험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미 기업들은 저렴한 달러자금을 마음껏 차입하면서 회사채시장은 몸집을 크게 불렸다. FT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만기를 맞는 회사채는 무려 4조 달러(약 4774조원)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는 '저금리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 때문에 2012~2014년 기간에 매년 1조달러 이상이 차입됐다고 집계했다.

2015년 상반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규모도 급증했다. 애플·엑손·보잉·컴캐스트 등 '투자등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전년동기비 무려 50% 늘었다. '투기(정크)등급' 기업까지 저금리에 기대, 이 기간 21%나 더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다.

시장전문가들은 금리정상화가 시작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 회사채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예



지 기업이 염려스럽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에 따르면 투자등급 기업의 부채 부담은 과거 12개월 이익의 2.62배로 2002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무디스와 S&P는 금리인상에 따라 향후 수년간 디폴트가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한다. S&P는 정크등급 기업의 디폴트가 2016년 6월까지 2.9%로, 2013년의 갑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빌 울프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3년간 기업들 '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기등급 기업들이 호황 장에 기대 자금을 조달해왔다"며 "하위등급을 부여한 기업 수가 과거보다 훨씬 큰 폭 늘었다"고 덧붙였다.

채권펀드 운용사 핼코의 모히트 미탈 펀드매니저는 타격이 가장 클 만한 섹터로 시추금속광산 업종을 꼽았다. 신흥국 수요감소에 따른 원자재값 하락으로 수익성은 나빠지고, 차입비용은 높아지는 '이중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의료업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피치는 올해 초 제약·의료업종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약업체의 합종연횡 바람 속에 무분별하게 빛더미 기업들을 인수한 데 따른 채무 부담이 금리인상과 맞물려 레버리지 증가는 물론 신용도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subway@news1.kr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버핏, 마음은 샌더스 몸은 힐러리 지지

(뉴욕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8일(현지시간)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방식을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버핏 버크셔 회장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샌더스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 뿐 아니라 과거에도 샌더스 후보처럼 캠페인을 벌이는 후보들은 거의 없다"며 "그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다른 후보를 헐뜯으며 빙빙 돌려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시장 경제에서 뒤처진 이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샌더스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후보는 최근 한 방송 여론조사 결과 처음으로 힐러리 후보를 앞서는 등 민주당 내에서 지지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대형 은행 구조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부자 증세 등 공약을 내세우며 학생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8일 공개한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43%로 샌더스 후보(28%)를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imi99@news1.kr

오바마 "모든 미국인에 유급 병가·가족휴가 보장해야" 입법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모든 미국 직장인이 유급 유급 병가와 가족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에서 열린 '위대한 보스턴 노동위원회' 주관 행사의 연설에서 "미 의회도 다른 나라를 본받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유급 가족휴가 및 병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미 했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이 기업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직 의회만 모든 미국인에게 이러한 안전망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내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보스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매년 7일 간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계약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에 따라 30만여 명의 직원들이 자신이나 아픈 가족, 친밀한 사람 등을 돌보기 위해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기본적인 노동구조가 가정의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가정이 가족과 직장 내 의무 간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출산수범한 이번 조치가 민간으로 확산해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4천400만여 명의 미국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내가 내 가족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며 "또 그런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를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공화당 인사들은 허풍을 그만 떨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며 "공화당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정부의 유급병가를 6주로 늘리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자신의 국정어젠다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연설에서 "미국은 노동자들에게 유급 병가와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월급과 아픈 아이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in@yna.co.kr



오바마, 정부 계약직 대상 유급 병가 행정명령 발동

(워싱턴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연방정부의 계약직 직원에게 연간 최소 7일의 유급 병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개최된 미국 최대 노동조합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행사 참석차 보스턴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2017년부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은 30시간의 근로시간당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급 병가제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정부 계약직원은 약 30만명이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근로자는 본인이나 친인척이 아픈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보스턴 노동위원회 조찬'에서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선진국"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친(親) 근로자적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근로자는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1993년부터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경우 12주간 병가를 낼 수 있지만 무급이다.

lchung@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릭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볼릭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escott St, Cambridge, MA 02142

Parking Information
1. 103 Prescott St. (near 103rd St.)
2. 103rd St. (near 103rd St. & Prescott St.)
3. 103rd St. (near 103rd St. & Prescott St.)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실어남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배신' 유승민의 측근이 표적? 새누리 심상철은 물갈이설

박 대통령 대구 방문 때 의원 불참령

해당 지역의원들 유와 가까운 사이
출마 노리는 청인사 등 총출동 대비

19대 총선 보복공천 악몽 재현 우려

청 "시민과 소통위한 자리" 선그어

(서울=한국일보) 김지은기자 = 최근 새누리당 내에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다. 진양지는 새누리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대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현역의원들이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대구 '친 유승민' 의원들 표적설
대구 물갈이설은 박 대통령이 7일 대구를 방문한 이후 더욱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 서문시장, 경주 월성 유적지 발굴조사 현장 등을 찾았지만 이례적으로 대구 지역 현역의원들에게 '불참령'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동선은 공교롭게도 유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지역구와 겹쳤다. 이종진(대구 달성군)·

김희국(대구 중·남구)·김상훈(대구 서구)·정수성(경북 경주) 의원 등의 지역구를 박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모두 초대받지 못했다. 해당 의원들은 사전에 대구시와 대구시당, 경북도당 등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얼굴조차 내비칠 수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들 지역의 출마를 노리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들은 대동했다. 지역정가에선 박 대통령과 동행했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대구 출마설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주 출마설이 파다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대구·경북의 현역의원들 입장에서선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 대구지역 의원은 8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는 물론 측근으로 꼽히는 몇몇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18대 총선 공천 때의 '친박 학살', 19대 총선 때의 '친박계의 보복공천' 악몽까지 거론한다. 한 당직자는 "19대 총선에서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공천을 받았지만 핵심측근인 진수희·권택기 전 의원 등은 탈락했다"며 "유 전 원내대표까지는 모르겠지만 측근의원들은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 되살아나는 '공천 학살' 악몽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친박계와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도 끊임없이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서울에선 '강남벨트'(서초·강남·송파·양천), 지방에서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등 여당의 텃밭에 도전하는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현역 물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19대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은 이공계 출신이거나 여성 정치신인이 현역의원과 경선을 치를 경우 최고 20%까지 가산점을 준 바 있다. 최근 성폭행 사건으로 탈당한 구미의 심학봉 의원이 이공계 가산점을 받아 지역 3선이었던 김성조 의원을 누른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 비박계의 중진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광역시 서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원은 "친박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회의를 퍼뜨리는 건 사실상 총선 룰로 청와대의 입김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 공천 몫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자 "경제 활

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고,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참석자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una@hankookilbo.com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ic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11TH - SEP. 17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하마트 33주년 감사세일

HAPPY 33rd YEAR Celebration

ANOTHER YEAR HAS GONE BY AND THERE'S SO MUCH TO BE THANKFUL FOR... SO WE SAVED OUR BEST SALE FOR OUR BEST TIME OF THE YEAR!

HARU HARU MILLED/BROWN RICE
하루하루 쌀/현미 15 lbs.
\$9.9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

GOLDEN KIWI
골든 키위 박스
\$19.99 box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200mL x 6ea./pkg.
\$4.99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

UNI 성게알 2.1oz./pkg.
\$6.9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

GOLDEN KIWI
골든 키위 박스
\$19.99 box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200mL x 6ea./pkg.
\$4.99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

Welcome to the **GyeongBuk**

TRADITIONAL KOREAN MARKETPLACE

Come enjoy the finest products of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in South Korea. Every year Hmart brings you their finest quality products.

경상북도 우수 농수산물 특판전

Sep. 18th - Sep. 20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33년 전통의 미주 최대 고국선물관

하마름 고국통신판매

9월 27일 추석 맛이 명품 한우, LA갈비, 굴비, 전복 및 제수용 과일세트 등 전품목 최대 20% 할인!

전화 주문: 201-229-1111
인터넷 주문: WWW.HMART.COM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 건강 반찬**을 지금 드셔보세요!

<p>Napa Cabbage 배추 박스 \$18.99 box</p>	<p>Koimo Sweet Potato 햇 코이모 고구마 \$1.49 lb.</p>	<p>Radish 무 박스 \$18.99 box</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Firm/Soft/Silken/ 14 - 16oz. \$0.99</p>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lb. \$6.99</p>	<p>Boneless Pork Loin 돈가스용 돼지고기 lb. \$4.99</p>
<p>Sliced Pork Butt C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5.9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lb. \$6.99</p>	<p>Cooked Conch Meat 냉동 소라살 lb. \$8.99</p>	<p>TONGTONGBAY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2 lbs./box \$20.99</p>	<p>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1 lb./pkg. \$25.99 pkg./for</p>	<p>TONGTONGBAY Abalone 통통배 전복 1 lb./pkg. \$20.99</p>
<p>OHSUNG Hong Bowl Noodle Soup 오성홍 사발면 박스 Hot&Spicy/Kimchi/ 3.03oz. x 12ea./box \$7.99</p>	<p>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Original/Parae/ 0.15oz. x 8ea./pkg. \$2.99</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99 ea./for</p>	<p>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5.99</p>	<p>HAIOREUM Dried Wild Squid 해오름 건조징어 1.65 lbs./10cnt - pkg. \$24.99</p>	<p>HAIITAI Honey Tong Tong Cracker 해태 허니 통통 2.29oz. \$2.99 ea./for</p>
<p>HAIITAI Bravo Ice Cone 해태 브라보콘 Vanilla/Choco/ 140mL x 4cones/pkg. \$4.99</p>	<p>BOUNTY Paper Towel 바운티 페이퍼 타올 12rolls/pkg. \$13.99</p>	<p>Super Basic Rope 슈퍼 베이직 줄넘기 All Colors/ea. \$1.99</p>	<p>QUEENSENSE C.D. Double Sided Pan 퀸센스 C.D. 양면팬 HRF-03/ea. \$21.99</p>	<p>Pumpkin Shaped Ceramic Pot 호박모양 세라믹 내열 냄비 Medium/ea. \$12.99</p>	<p>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 Warm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보온 밥솥 NS-TSC10/5.5cups - ea. \$129.99</p>

새누리, 연일 포털 공세...TF 구성해 대책 마련

"이념 편향 및 청소년 유해 광고 등 개선해야"

(서울=뉴스1) 진성훈,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이 연일 포털 사이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 편집의 정치 편향성과 청소년 유해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언론사에서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이것을 포털에서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것을 미끼로 (언론사가) 광고협찬을 강요해 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포털의 기사 게재에 신중함을 기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포털은 언론의 통로 역할로 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좌편향 글들이 편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념 편향적 시각의 기사 유통과 함께 선정성이 강한 청소년 유해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내야 하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도 "지금의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는 언론 생태계를 붕괴시켜 양질의 뉴스 생산을 방해하고, 뉴스편집권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며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당내에 정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등 별도의 기구를 꾸려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포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 대표들의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편향을 넘어 왜곡된 정보로 미래세대 를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rue@news1.kr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건수>

구분	네이버	다음	SK컴즈	합계
2010	85,573	58,186	1,353	145,112
2011	123,079	97,104	3,504	223,667
2012	155,161	67,342	7,664	230,167
2013	277,146	88,634	9,196	374,976
2014	337,923	116,261	642	454,826
합계	978,882	427,527	22,359	1,428,768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임시조치'로 사라진 게시물 45만건 4년새 3배 ↑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정부의 '인터넷포털 임시조치'로 차단되거나 삭제된 게시물이 4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포털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건 100%를 30일 간 임시조치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2만7528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에서는 2배 이상 늘었다.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SK컴즈의 감소세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보 삭제 요청자에게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 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정보 게시자의 이의제기는 늘고 있음에도 임시조치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에 침해해 받았다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시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kmaeng@news1.kr

대구는 안부르고 인천은 부르고... 청 '고무줄 초청' 시끌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9일 인천 행사에 인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초청돼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를 찾아 인사말을 했고 이 자리에 새누리당 박상은 안상수 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윤관석 의원 등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람회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부처청, 17개 시도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12일까지 열린다.

주최측은 박람회 초청장을 인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로 지난달 중순 발송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날 여의도 정가가 시끄러웠던 까닭은 이를 전인 7일 박 대통령의 대구경북행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구시 달성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대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경북 경주를 찾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았다.

하지만 그 전날인 6일 대구시는 청와대와 상의한 결과라며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불참령'을 내린 바 있다. 지자체 업무보고의 성격이 짙는데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관련 행사여서 정치인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댔다고 한다.

그렇던 청와대가 이날 인천 행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 전원을 초청해 "도대체 저의가 뭐냐"는 굵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는 밖에 나 두달 전 원내대표직에서 중도하차한 '유승민 사태'의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의원들이 참석하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사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도 아닌데"라며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박람회의 경우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대구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토론 자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행사의 성격과 방식을 갖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뒤 참석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dearpur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문 '재신임 카드'에 야 혼돈 속으로...비주류, 대응책 고심

(서울=뉴스1) 김현, 조소영, 박응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공천혁신안 처리를 앞두고 사실상 혁신안과 연계한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정치연합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표가 혁신안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카드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진통 끝에 혁신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물겠다.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특히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투표 방법으로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일반국민 여론조사 50%+ 전(全) 권리당원 투표 50%)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오는 16일 중앙위의 혁신안 처리에 '모두 걸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의 이같은 선택은 당내 비노(비노무현)·비주류가 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신당 및 분당론을 앞세워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린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제 결정이 대표로서 더 이상 당의 혼란과 분열을 끝내기 위한 가장 책임있는 선택이라 믿는다. 당을 안정시키고 질서 있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혁신안의 중앙위가 열리기 전까진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중앙위 결과는 당내 흥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의 혁신안 처리와 재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안 및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드의 성공 여부는 문 대표 체제 유지와 문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까지 달려 있는 만큼 당 주류는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측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실천이다. 논의 과정에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실천에는 한 길이 있을 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측은 문 대표의 '재신임 카

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은 "충정어린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은 "본질을 비켜갔다.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비주류 일각에선 "중앙위를 다 자신들이 구성해놓고 자신 있다는 것이 아니냐. 진정으로 재신임을 물으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비주류측은 "문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중앙위는 물론 재신

임 투표 과정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비주류 성향 의원들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의 중앙위를 전후해 야권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신당 로드맵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야권의 혼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news1.kr

야, 격론끝 공천혁신안 당무위상정,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을 이날 당무위원회에 올려 의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천혁신안을 당무위에 상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표결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병헌 오영식 최고위원 등은 이날 혁신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당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의 다수가 안건 상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도중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천혁신안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주류, 비주류 간 인식 차가 커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jbryoo@yna.co.kr



안철수-천정배 전격 회동... "야 이대론 안돼" 공감

야권 재편 맞물려 두 사람 연대 여부 주목

안 "함께 해야 한다", 천 "새판 짚수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전격 회동했다.

특히 이날 만남은 새정치연합이 공천혁신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최근 "혁신은 실패했다"며 당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야권의 새판짜기와 관련해 주목된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전 대표 방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의원회관 사무실이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웃사촌' 사이지만, 천 의원이 4·29 광주서를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재입성한 뒤 천 의원 사무실에서 한차례 티타임을 가진 것을 빼고는 별도 만남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낮은 진보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떠나고 있다

가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와 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이대론 안된다", "혁신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천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가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의 혁신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천 의원에게 "우리 당

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봤다"며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며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배경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천 의원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hanksong@yna.co.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기분을 갖고 있는 계층,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요인으로 인기가 높은 계층



최대용 시세이도 보스톤
컨설팅/마케팅/모텔
홍은희

군, '900 연구소' 정체 숨기기 급급 왜?

권은희 "작전 기관인데 왜 연구소 명칭" 정체 추궁...한민구 "국가안보차원 언급 부적절"
진성준 "연구 관련 조직에 뭐 그리 보안사항이 많다고..." 꼬집기도

(서울=뉴스1) 조영민, 박응진 기자 =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00 연구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 표명이 이어졌다.

900연구소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산하 조직이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물론 어디에 위치한 조직인지조차 군 당국이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연출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900연구소와 관련 "사이버 작전 관련 조직인데 왜 '연구소

'명칭이 붙었나, 어디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냐'는 등의 질문으로 900 연구소의 정체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내부의 임무수행 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권 의원이 과거 군 조직의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900연구소'의 업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추가로 묻자 한 장관은 "적법성이라든지 민주적 가치와 관련 전혀 이상이 없으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900연구소가 군의 보안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느냐'는 추궁에 국군기무사 조현천 사령관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00연구소'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군기무사와 국방부 정보당국이 '900연구소'에 대한 보안검사를 요청한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 측이 900연구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자 "연구 관련 조직이 뭐 그리 보안사항이 많아

서 모든 걸 비밀로 하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bin1981@news1.kr

사이버사 댓글 공작 폭로 2년 정치댓글 핵심 요원 '징계' 대신 '진급'

정치관련 혐의 수사 받은 여성 중사, 상사로 권은희 의원 "군, 승진 철회, 징계절차 밟아야"

(서울=경향) 구교형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재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련 혐의 등으로 불기소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

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2012년부터 SNS 활동에 몰두한 이씨는 트위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오빠 엠비스타일'이란 동영상 올리는가 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의 글들을 리트윗(퍼나르기)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라는 글을 퍼나르면서 "NLL을 앞으로도 잘 사수해 주세요"라고 썼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02년 군 입대 후 8개월을 뺀 나머지 복무기간 내내 심리전 업무만 담당해온 이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2008~2009년에는 'leesulbi0409'라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주무대로 활동했다. '블로그 황금기'로 불린 2010~2011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 활용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이씨의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wassup01@kyunghyang.com

'530단'서 '700센터'로...간판만 바꾼 심리전단

일부 요원들 그대로...제도 개선 없어 조직개편 '공염불'

(서울=경향) 구교형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을 개편하고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업무 방향도 '사이버위협 정보 수집·분석'으로 전환했다. 본래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을 표방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실도 국방부 등에 하달한 '사이버 강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사의 정보 수집·분석·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사이버사 부사령관 출신인 신인섭 준장이다. 조직 명칭과 업무 방향은 바꿨다고 하지만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제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정치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에서 '상명하복'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이모씨(33·여) 등 19명은 지난 2월 구두경고와 사이버사령관 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한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유력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심리전단 활동의 불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정치댓글 사건 이후 심리전 활동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사이버안보령 등의 제정이 검토됐지만 국방부의 업무 추진은 매우 더딘 상태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업무를 군내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은 "현대 사이버전이 차세대 국방 역량의 핵심이라는 점을 구실로 맹목적으로 사이버사를 키워달라고 하기 전에 과거의 잘못부터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wassup01@kyunghyang.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서울 or Udonchi III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서비스	가격	비고
1. 머리 염색	\$35	기존 염색 제거
2. 머리 퍼마	\$45	머리 손상 최소화
3. 머리 트리트먼트	\$25	머리 건강 증진
4. 머리 케어	\$15	머리 관리
5. 머리 스타일링	\$10	머리 마무리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자바 70불 부터
디자깅 130불 부터/캐리컷 160불 부터 시작합니다.

장학 연구생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The Word Is Out...

**No One Markets
Like Hammond**

집을 사고 팔 때도
전략이 필요 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 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www.HammondRE.com • www.HammondMagazines.com • www.HammondVideos.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보스톤
보스

안녕하세요. 보스톤코리아는 한인 여러분만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최고의 한식 전도사 한식 식당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는 한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보스톤 한식당 내 선의의 서비스 및 음식 맛 경쟁을 장려하고자 보스톤 현지인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한식당을 선정합니다. 다만 한식 식당은 매사추세츠 주내로 한정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곳에 이렇게 많은 한식당이 한식을 미국에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1등상
한국 왕복
비행기표

후원: KFood with

ALUGUSTIN

KFood with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지금 참가하세요!

9월 18일 응모 마감

(18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울스톤) | 서울설령탕(울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울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엔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언스터) |
| 다빈(렉싱턴) | 아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퍼스시(울스톤) |
| 매주(서버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울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울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울스톤) | 코리안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울스톤) | 한국가든(울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울스톤) |
| 사부로(뉴튼) | 전320(브루클라인) |
| 사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017-254-4854)로 연락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시고,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애플워치를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아래에 주소 보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181 Harvard Ave, Suite 13 Boston, MA 02134
응모 투표를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됩니다.

인회



민주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학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보스톤 재향 군인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재입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7:30

이 집은 삼기둥인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골로 3:16)

담임 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Owner of RE) WWW.CANA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탈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8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et.
 New York Univ. MAJ.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겨레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제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 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HUSHI.COM

시시야: 정통 일본식 오빠스시, 만두, 요미, 덴푸라, 수제 떡볶이, 수제 떡볶이, 만두, 덴푸라, 덴푸라

스시와 롤: 정통 일본식 오빠스시, 덴푸라, 덴푸라, 덴푸라

시시야 풍요스 김밥

인생에서 꼭 경험해보고 싶은, 보스톤의 최고 요리사로서 사랑받고 맛있는 시시야, 롤과 김밥을 365일 캐주얼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 요양에 적용 가능합니다.

617-202-3808 • 113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새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많은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혼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회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사랑교회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여러분에게 자비한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스톤 언론 역사를 강력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pk@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시민권 신청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3801 sf.
\$25k price reduction
2 family or bonus space
이현주 401-935-3397



\$369,000
Sharon, MA
3 Beds, 1Bath, 1426 sf.
Finished basement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28,000
Lexington, MA
3 Beds, 1.5 Baths, 2100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1,300
Lexington, MA
1 Bed, 1 bath, 725sf.,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2,7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대 / 2009년 100대 / 2010년 100대 / 2011년 100대 / 2012년 100대 / 2013년 100대 / 2014년 100대 / 2015년 100대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47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Director of Real Estate
 www.cd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www.Stevesuh.com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Vol. 11 No. 36 September 11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보스톤 주민의 편의를
윙잇 (Wing-It)
 업소탐방 303
윙잇
 1153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617-783-BIRD(2473)

Welcome, **YTC**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료 서비스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맨의 특별한 장점
 회비를 비교해 보세요
 YTC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무제한 시청 할 \$39.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올스톤 커먼웰스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치킨 윙 가게 ‘윙잇(Wing-It)’은 30년 전통을 자랑한다. 1986년 대학생 3명이 시작한 윙잇은 15년전 한인 송명조 사장이 인수해서 현재까지 치킨 윙 가게의 최장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비큐 소스와 테리야키 소스가 섞인 테리다кто(Teridactile)소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스 중 하나다. 이어 자극적인 허니핫(Honey Hot) 윙은 한인들이 좋아하는 매운 양념치킨의 맛을 연상케 한다. 소스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릭 파미산(Garlic Parmesan)이나 레몬 페퍼(Lemon Pepper)등 드라이(Dry)한 윙을 즐길 수 있다. 블루 치즈(Blue Cheese) 드레싱이나 렌치 드레싱에 찍어먹으면 더 맛있는 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Buffalo Wild Wings) 등 보스톤에 윙집들이 많이 생겨 났지만 절대로 원조의 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그외 윙잇은 치킨 샌드위치, 햄버거, Baby Back Ribs, 파스타 샐러드, 감자 샐러드 등 인기 많은 메뉴를 맛 볼 수 있다.

윙잇은 30년동안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이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찾아오는 등 손님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윙잇은 전 보스톤 셀틱스(Boston Celtics)농구팀 레이 알렌(Ray Allen)과 케빈 가넷(Kevin Garnette) 등 유명한 선수들도 가끔 찾곤 했다. 이어 백인, 흑인, 중국인 외 수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끊임 없이 찾아와 치킨 윙 원조의 검증된 맛을 선보이고 있다.



윙잇의 로고에 적혀진 ‘종종 흉내를 냈지만 절대로 복제되지 않았다(Often Imitated, Never Duplicated)’ 글은 30년동안 버팔로 와일드 윙스

윙잇의 손님은 대부분이 투고 픽업(Togo Pickup)이나 배달이다. 송명조 사장은 “한인들 중 락스베리나 도체스터 지역에 윙 가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617-5846866)바란다” 고 말했다.

윙잇은 BC, BU, 캠프리지, MIT, 브라이튼, 브록 크라인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한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PM, 달달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ART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소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청/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청/정신요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행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화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총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동맹(메인)	207-878-5652
625창선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백산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영광교회	617-620-3362
예이이 뱀교회	978-274-2359
영광스튜어트장로교회	413-549-6495
영광스튜어트교회	413-549-9200
영광스튜어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한인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문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욱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월드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인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유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이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이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중얼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e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윌리엄D/에릭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프레스서 구합니다.
네틱지역.
T. 508-655-5004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케임브리지 초초스
T. 617-792-5497

레딩에 있는 폴리쉬드네일샵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978-898-7953, 603-401-158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Plymouth에 위치한
네일샵용 매매**

3,000 SF.
8 페디큐어 চে어
8 테이블
2 왁스 톨
Asking Price: 380K

대 자매업 내공용 약에서 판매할 판매부서로
617 223 7836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쓰,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노쇼어 세탁소 매매, 140K+90K
Non Perc+셔츠, 판매조건 협의 가능
T. 978-979-4541

N[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져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져 합니다.
T. 501-753-1691

N[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져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아웃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패션 디자이너 구인]

-패션/그래픽 디자이너 를 원합니다
-파트타임, Duluth 지역
-한국어와 영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합
니다.
T. 224-392-4209
224-251-8805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탐정' 권상우의 코믹 귀환, 통할까?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권상우가 코믹 연기에 도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상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탐정: 더 비기닝' (감독 김정훈) 제작보고회에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적인 코미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보다 더 처절하게 연기했다.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다"면서 "580대1을 뚫은 퀄리티의 시나리오이다 보니 그런 영화 안에서는 망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 권상우는 '탐정: 더 비기닝'에서 형사 뺨치는 추리력을 갖고 있지만 아내에게 구박받는

철없는 만화방 주인 강대만 역을 맡았다. '탐정: 더 비기닝'은 한국의 설록을 꿈꾸는 추리광 강대만 (권상우 분)과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형사(성동일 분)의 비공개 합동 추리작전을 담은 영화다. 배우 권상우, 성동일이 출연한다. 오는 9월 24일 개봉. aluem_chang@news1.kr



소지섭 신민아 '오마이갓' 첫 상대역 호흡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소지섭 신민아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라마 '오 마이 갓'이 오는 11월 KBS2 월화 드라마로 방송된다. '오 마이 갓' (극본 김은지, 연출 김형석)은 극과 극 두 남자가 만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소지섭은 SBS '주군의 태양' 이후 2년 만에, 신민아는 MBC '아랑사또전'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의류 광고 속 커플로 등장했던 두 사람은 극중에서는 처음으로 연인 호흡을 맞춘다. 소지섭은 스스로의 약점을 독한 오기와 끈기로 극복해낸 얼굴 없는 할리우드 스타 트레이너 김영호 역을 맡았다. 어린 시절 받은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재벌 2세임에도 고

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온 남자다. 신민아는 가족 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해 로펌의 변호사가 되지만 그로 인해 젊은 시절 열정, 몸짱의 명성을 모두 헌납한 채 몸짱 33세 노처녀가 돼버린 강주은 역으로 등장해 망가짐을 불사하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 마이 갓' 제작사 몽작소 측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유례없던 새로운 익사이팅 리얼리티 멜로가 될 것"이라며 "소지섭, 신민아는 물론 알짜배기 제작진으로 뭉친 '오 마이 갓'의 행보를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오 마이 갓'은 소지섭, 신민아 외에 다른 출연진의 캐스팅 작업에 한창이다. ppbn@news1.kr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아수라' 출연 확정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이 영화 '아수라' 출연을 확정지었다. '아수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는 8일 "정우성과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 윤지혜, 김해곤, 김원해, 오연아, 윤제문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수라'는 말기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버리를 저지른 형사가 검찰의 압력으로 거악인 지방자치 단체장을 검거하려 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다. 극중 정우성은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으로 분한다. 황정



민이 버리와 이권에 혈안이 된 약덕시장 박성배 역을 맡았다. 주지훈은 한도경을 따르다 그의 명으로 박덕배 시장 밑으로 간 형사 문선모 역으로 합류했다. 곽도원은 박성배 시장 버리를 수사하는 특검팀 검사

김차인으로, 정만식이 검찰 수사관 리더인 도창학 역할로 출연한다. 한편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이 출연하는 '아수라'는 이달 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uu84@news1.kr

'냉장고를 부탁해' 지드래곤, 19금 맛 평가?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냉장고를 부탁해' 지드래곤이 김풍 요리를 평가했다. 지난 7일 밤 9시4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지드래곤의 냉장고 속 재료로 김풍과 이찬호가 요리 대결을 펼쳤다. 이날 김풍은 베트남식 면요리인 '분짜지용'을 선보였다. 분짜지용을 맛본 지드래

곤은 "맛있는데 많이 맛본 느낌이다. 그래도 손이 계속 간다"고 평했다. 지드래곤은 이어 MC 정형돈이 "국물을 시원하게 마셔볼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릇째 국물을 맛본 후 "맛이 너무 야하다. 뭐랄까,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땡기는 맛이다"고 말했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8월 31일 ~ 9월 6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4.5%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4.2%
3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17.2%
4	MBC	무한도전	16.9%
5	KBS1	KBS9시뉴스	16.8%
6	MBC	주말드라마(엄마)	15.3%
6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15.3%
8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4.0%
9	KBS2	해피선데이	13.8%
10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3.1%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3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4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5	KBS2	TV소설(별이되어버턴나리)
6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7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8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9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0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레옹	박명수, 아이유
02	맏소사	황태지
03	겁 (Feat. 태양)	송민호
04	스폰서 (\$ponsor)	으뜨거파시
05	멋진헛간	오대천왕
06	I'm So Sexy	유재석, JYP
07	오빠차	인크레더블
08	거북선 (Feat. 팔로알토)	자메즈
09	Lion Heart	소녀시대
10	위잉위잉	혁오 (hyukoh)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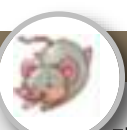
				4		2	3
		8		3	1		
4				8	5		
		1		8		3	7
		7	4	1	9	2	
5	8			2		4	
		2	6				4
			1	9		3	
6	1		8				

9월 13일 - 9월 1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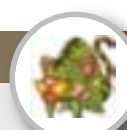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뽕띠 | 지혜롭게 활용해야

● 운수: 귀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현재 주어진 현실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 거래는 확인을 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투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정성과 열정을 기울였던 것만큼이나 실망감이나 배신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소띠 | 모처럼 통쾌하고 시원한

● 운수: 모처럼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생깁니다. 심년 묵은 체증이 속 내려가는 것 같겠습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이상형에 맞는 상대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던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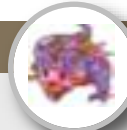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자신을 돌아보아야

● 운수: 현실에 대한 불안감에 휘말리기 쉽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변화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문서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니 매매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애정: 갈채보다는 진실성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거짓된 사랑에 속아 눈물을 흘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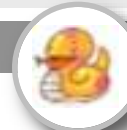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토끼띠 | 건강에 신경을 써야

●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법입니다. ● 금전: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애정 문제가 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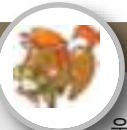
용띠 | 깊은 감동이 전해지는

● 운수: 알게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에 무감각해왔던 일상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이 전해집니다. ● 금전: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안심하고 열심히 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사귀다가 한 걸음 다가가서 애정 관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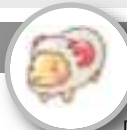
뱀띠 |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세요. 바로 옆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있습니다. ● 금전: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길 수 있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 애정: 아성에 반해 버리면 상대의 결정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느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18일 길일. 17, 19일 주의.



말띠 |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 운수: 더 이상 단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 금전: 겨우 어려움을 면하는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금난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니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 애정: 나중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한번 식은 애정은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양띠 | 양지가 음지를 이기는 법

● 운수: 햇빛이 바람을 이기고 양지가 음지를 이기는 법입니다. 지금은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바꾸는 운이니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느꼈던 사람처럼 설레는 가슴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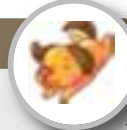
원숭이띠 | 실행에 옮길 기회가

● 운수: 평소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망설이면 결국 자신만 손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 금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하거나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이익이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애정: 매우 정열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9일 길일. 15,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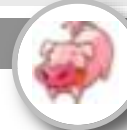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닭띠 | 다음을 기약하도록

● 운수: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려는 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도록 합니다. ● 금전: 처음에 작은 손실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 애정: 격정이라는 울안에 갇혀 있으면 꿈만 꾸다가 말게 됩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연애도 가능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개띠 | 조그만 관심이라도 보여야

● 운수: 모든 여건이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큰 행운은 아니어도 작은 행운은 찾아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는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 애정: 너무 바빠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염두에 두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조그만 관심이라도 보여야 평화가 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7일 길일. 13, 16일 주의.



돼지띠 | 가랑비에 옷 젖듯

● 운수: 진정한 강자라면 포용력으로 약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렇듯 사람을 관대한 태도로 대하면 결국 자신에게 그 덕이 돌아옵니다. ● 금전: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손해가 따를 수 있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잘 풀릴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 차츰차츰 스며든 사랑은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윤은혜 표절 논란...윤춘호 "소름돋는다"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윤은혜가 표절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윤은혜는 최근 방송된 중국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서 '나니아 연대기'를 테마로 한 미션에서 팔에 날개 모양 레이스를 단 의상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윤춘호 디자이너는 자신의 SNS에 "중국 패션 방송에 우리 옷

이 나왔다고, 그냥 협찬이 나갔나 하고 넘겼는데 다른 여자가 만든 옷이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조금 다르니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쾌하다. 내가 느끼고 직원들이 느낀다. 옷을 만드는 선생님들, 우리 옷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면 맞는게 아닐까"라고 덧붙이며 표절을 확신했다. 또한 윤춘호 디자이너는 "알고보

니 아르케(회사명) 옷을 며칠 전에도 협찬으로 찍어해갔던 스타일리스트와 종종 입던 배우. 둘이 함께 만들었다니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으며 소름돋는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윤은혜 표절 논란, 진실은 뭘까", "윤은혜 표절 논란, 해명 필요할 것 같다", "윤은혜 표절 논란, 사실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블로거 A씨 "강용석, 사진 속 인물 맞아"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블로거 A씨가 불륜 스캔들 상대인 강용석과의 홍콩 및 일본 만남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씨가 맞다. 홍콩에서 강용석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가슴깊이 누우치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다. 하지만 입국 날짜가 전혀 다르며 숙소 또한 각자 다르고 먼 곳이었다"며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은 그 날 저녁 약속을 했고, 예약시간전까지 남은 시간이 있다가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제가 부인했던 이유는 '홍

콩'이라는 단어로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지며 당사자가 만남을 잠시라도 인정하는 순간 해당 스캔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듯한,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사진이 공개됐던 당시 만남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형사상 또는 검찰조서에서 거짓 없이 이뤄져야하는 바, 제 블로그에 스스로 강용석을 홍콩에서 보지 않았다는 거짓을 게재한 것을 위 사항에 밝혔듯이, 상대와 관계를 부적절한 사이로 여론이 흘러감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전 포스트를 한 점을 이웃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star@news1.kr

'해피투게더', 전현무 합류와 함께 사우나복 벗는다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가 7년 만에 새 단장을 한다. KBS 측은 8일 " '해피투게더'가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간다"며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전현무가 새로운 MC로 합류한다. 전현무는 유

재석과 박명수 MC체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은 "그 동안 포맷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해피투게더' 본연의 색깔을 살리면서 진정성을 찾는 것이었다"며 "웃음과 의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래도

록 사랑해주신 시청자 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투게더'는 지난 2001년 11월 처음으로 전과를 탄 이래 게스트들의 다양한 사연을 전하는 따뜻한 토크 예능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kun1112@news1.kr



천지보상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초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급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s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맥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약세사리 카트 : 큰 물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3회

페루에서 만난 '세 한국인'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몇 달 전(6개월)부터 준비한 페루 여행 길이었다. 여행은 언제나처럼 설렘과 두려움 사이 기분 좋은 짜릿함을 선물해 주어 좋다. 편안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출발 낯선 곳으로 향하는 떠남은 늘 내게 신선함으로 있어 좋다. 그렇다, 삶은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모두 같을 수 없고 같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입학하고부터 내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여행)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세 아이가 어려서는 마음의 준비를 했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준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 엇그제는 페루에 다녀왔다.

한 5년 전 산행을 시작하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언니)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의 여건이 비슷하고 삶의 가치관이 비슷해 생각을 나눌 수 있어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함께 하자는 약속과 함께 우리는 벌써 세 곳을 함께 다녀왔다. 2012년에는 Las Vegas의 Grand Canyon 돌아 캘리포니아의 Death Valley를 함께 다녀왔다. 화씨 110° F(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열기 속 Death Valley(죽음의 계곡)에서의 멋진 추억을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2013년에는 Yosemite의 Half Dome(8836 ft)을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12시간의 산행을 다녀왔다.

그렇게 시작했던 여행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도 더러 있지만, 늘 산행을 하며 지냈던 그 말 없는 후원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감싸주며 좋은 친구로 있는 것이다. 이번 여행도 여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성품의 언니와 함께 씩씩하시고 활달하신 우리 둘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어른과 함께 셋이서 움직이게 되었다. 어찌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던지 젊은 우리 둘보다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이 참으로 많았다. 국내외 여행을 여러 곳 많이 다니셨던 경험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삶의 경험을 나눠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다.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인 페루의 일기가 아주 중요했다. 이번 여행은 미국인 12명과 한국인 3명 그리고 페루인 가이드 1명이 함께 16명이 함께 움직이게 된 여행이었다. 미국 보스턴 날씨는 8월 한여름인데 그곳의 날씨는 겨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해 11박 12일

의 여행 일정을 정하고 보스턴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보스턴을 출발해 2시간 30분이 되어 아틀란타에 도착했다. 그리고 얼마를 기다렸다가 아틀란타에서 페루의 리마 공항에 도착해 미국인들과 함께했다. Peru의 'Lima'에서 하룻밤을 묵고 우리 모두는 Peru의 'Cusco'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실 페루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제일 걱정이 이는 것은 다름 아닌 '고산증'이 염려되었다. Peru 여행을 떠올리면 'Machu Picchu'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고산증으로 혹여 '마추피추'에 오르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서 더욱이 그랬다. 우리는 페루의 '쿠스코'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페루인 가이드로부터 상세한 여행 지침을 듣고 그의 말에 따라왔다. 왜냐하면 페루의 '쿠스코'의 고도가 약 12,000 ft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것은 페루의 '마추피추'보다도 '쿠스코'의 고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페루인 가이드의 말에 따라 물과 '코카 티'를 많이 마셨다.

그렇게 도착해 미국인 12명과 한국인 3명 그리고 페루인 가이드 1명이 함께 움직이며 한 이틀은 별 탈없이 잘 지내며 여행을 하였다. 그런데 한 4일째 되는 날부터는

한들 아픈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음식이 맞지 않아 탈이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산증의 작은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도 하루 정도 아파서 호텔에서 쉬면 다른 여행자들이 돌아올 저녁쯤에는 함께 합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며 그 다음날에는 함께 움직이곤 했다. 이렇게 11박 12일을 미국인들과 함께 움직이며 여행하기는 처음이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움도 있었지만, 며칠 보내니 편안한 분들도 만나게 되어 좋았다.

우리는 여행 중 페루의 '마추피추'를 오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고갯길을 한참을 올라서야 닿을 수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멋진 장관의 모습은 말이 아니어도 그 깊은 산 속의 기운이 절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는 여행자 모두가 '신비로운 마추피추'를 둘러 가이드의 설명도 듣고 사진도 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마추피추' 정상에 오르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그곳을 올라보고 싶은 여행자들은 많았지만, 결국 우리 한국 여인 3명만이 '마추피추' 정상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렇게 페루에서 씩씩하고 멋진 '세 한국인'을 만나고 돌아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라이방을 기억하시는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프에 라이방을 썼던가?

반세기도 넘었다. 그날 오월 십육일 새벽 중양청 앞에서 선 육군 소장 사진이다. 검은 안경은 군모 밑에 가려진 그의 눈동자를 온전히 가렸다. 양다문 입술 모양은 걸기가 넘치는 듯 보였다. 무섭기 보다는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그런 그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을 적에도 선글라스를 즐겨 썼다. 케네디 대통령과 만날 적에, 실내에서도 썼으니 말이다. 글쎄, 어렸던 내가 봐도 그다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선글라스도 어울리고 필요할 때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사진 한 장이 내 눈길을 잡았다. 한국 대통령이 북경 천안문 문루門樓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다. 다른 이들은 모두 서서 열병식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통령은 노란색 재킷위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다. 어색하지 않고, 차라리 여유로워 보였다. 단단하거나 경직되어 보이지 않았던 터. 속내를 보이지 않는 표정이 고단수처럼 보였다는 말이다.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는 모습은 뭔가 많은 걸 보여 주는 듯 싶었던 거다.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눈이 부셨나? 그가 선

글라스 쓴 모습은 전전 박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였다.

이이제이以夷制夷란 말이 있다. 오랑캐 손을 빌려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말이다. 삼국지에 나온다. 현대판 이이제이 병법이 한창인 듯 싶다. 미국은 일본을 오랑캐 삼은 듯 하고, 중국은 한국을 앞세우려는 듯 하다. 현대,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라 했고, 강력한 우방 아니겠나.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오래 전엔 중국을 '중공' 中共이라 불렀고, 우리가 중국을 오랑캐라 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 해야겠다. 우방 미국이 한국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기를 빈다.

대통령이 썼던 안경 상표를 누가 또 찾아 낼 것인가. 상표가 알려진다면 날개돋친듯 팔려 나갈게다. 대통령이 말한 '대박' 나는 거다. 하긴, 대통령이 무슨 핸드백을 들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구두를 신었는지 모두 관심의 대상이다. 대통령표 손목시계도 품귀라 하던데 혹시 누구 차고 있는 이는 없는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 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4:18)

햇빛이 눈부시게 빛난다. 가을이 오긴 온 모양이다. 비가 의외라면, 덥고 청명해야 한다. 마른 햇빛은 쨍쨍 빛나야 한다는 말이다. 가을 햇살은 그래서 축복이다. 너무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찾아 써야할까 보다.

이른 아침에 /면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면지가 된 나를 하루종일 찬란하게 비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승, 햇살에게)

선글라스가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 되던가? 색안경이라 해야 할 거다. 하지만, 색안경이라 하면 왠지 촌스러워 보인다. 선글라스 중에 '라이방' 도 있다. 판문점 남측 우리 병사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 말이다. 라이방은 상표 이름일텐데, 그냥 그렇게 부른다. 선글라스 '라이방' 은 여전히 모델이 변하지 않은 듯 하다. 그렇다고 내가 라이방에 무슨 로망이 있는건 아니다. 단지 그 색안경은 눈에 설치 않다. 오래 전부터 봐서 그런가 보다. 맥아더 장군도 파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5. 조상의 땅을 사수하라 (6)

블랙호크 전쟁(Black Hawk War) (계속)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링컨(Abraham Lincoln)은 약 석 달 동안 민병대 지휘관으로 블랙호크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는 참전 공로로 미국정부로부터 땅을 증여받기도 하였다. 그는 한 중대를 지휘했는데, 이전에 아무런 전투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플로리다 세미놀 부족의 수난
플로리다는 처음 스페인의 식민지로 개척되었다. 1754년부터 1763년까지 지속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스페인은 프랑스 편에서 영국과 싸웠는데 프랑스 연합군이 패배함으로써 플로리다의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식민지세력에 패배함으로써 전쟁에서 식민지 편을 들었던 스페인이 1783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거 플로리다를 되찾게 된다.

플로리다 지역의 중심 부족은 세미놀(Seminole)족으로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어서 크리크 전쟁에서 후퇴한 붉은 막대기(Red Stick) 지파를 비롯하여 도망쳐 나온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을 빠져나와 플로리다 세미놀 부족의 영역으로 많이 모여 들었다. 세미놀 부족의 품으로 들어온 흑인들은 블랙 세미놀이라 불렀는데 이들과

인디언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다. 플로리다 지역 인디언들이 이따금 국경을 넘어 조지아나 캐롤라이나 정착민을 공격하자 미국은 플로리다를 침범하여 세미놀 족과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은 1814년부터 1819년까지 계속 되었는데 흔히 제1차 세미놀전쟁으로 불린다. 이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은 텍사스에서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플로리다의 지배권을 미국에 넘기게 된다.

1835년 말부터 1842년까지 세미놀족은 미국과 두 번째 전쟁을 치렀다.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인 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인디언 격리정책에 따라 플로리다의 세미놀족도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킬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세미놀은 이 정책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격렬한 저항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미놀족과의 2차 전쟁에서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7년간 쓰인 전쟁비용은 2천만 내지 4천만 달러로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약 3천명의 세미놀 인디언과 약 8백명의 흑인 세미놀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한다. 끝까지 저항한 수백 명의 인디언들은 남서부에 마련된 비공식 인디언보호구역으로 수용되었다.

1855년 말에는 제3차 세미놀전쟁으로 불리는 충돌이 또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1858년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전쟁의 결과로 163명이 뉴올리언스행 배를 타고 강

제 이주의 길에 올랐다.

6. 체로키의 눈물의 길 체로키족의 수난

전쟁영웅으로 이름을 날렸던 앤드루 잭슨이 182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디언들은 흑독한 시련의 계절을 만나게 된다. 잭슨 재임 시절의 미국은 인디언과 흑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영토 확장과 국력증강에만 골몰하는 백인 정착민들의 전쟁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지아 주가 체로키족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를 추진하고 나섰다. 조지아 주 방위군의 지원 하에 금을 채굴하려는 백인들이 마음대로 체로키 영토를 침범해 들어왔다. 1830년에 앤드루 잭슨의 인디언 강제이주법(Indian Removal Act)이 북부 출신 양심 있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되었다.

체로키 부족은 축토, 치카소, 크리크, 세미놀족과 함께 소위 '5개의 문명화된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에 의하여 인디언 강제이주가 추진되자 체로키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인디언 부족들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 1830년에서 1832년에 걸쳐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오늘날 오클라호마(오클라라는 붉은색을 뜻하고 호마는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 말)에 있는 인디언의 땅(Indian Territory)으로 이주하였지만 체로키족

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부에서 온 헌신적인 우스터(Worcester) 선교사 등의 지원을 받으며 또 법률적으로 대항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1828년에 대추장으로 뽑힌 존 로스(스코틀랜드계 아버지와 체로키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는 강제 이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다짐하고 워싱턴으로 달려가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장 마셜(John Marshall)은 역사적인 두 재판, 곧 1831년의 '체로키족 대 조지아 주 사건' 과 1832년의 '우스터 선교사 대 조지아 주 사건' 에서 오늘날까지 미국 원주민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짓는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판결에서 그는 인디언은 외국인과는 다른 내국 속민이라고 판결했는데 인디언과 그들의 영토는 연방 정부 하에서 연방 소속의 개별적인 주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준독립보호령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조지아 주의 법률은 체로키족의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때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어허 마셜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그럼 자기가 그렇게 집행해 보라지!(John Marshall has made his decision; now let him enforce it!)" 이쯤 되면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탄핵감이 될 텐데,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별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7 태권도와 김운용(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978년 제42회 국제사격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1979년 '국민체육심의회' 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박종규 사격연맹회장만 찬성하고 최규하 국무총리 이하 모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 '꿈' 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다시 논의 되었고, 국민의 단합과 국위선양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에 있어서 올림픽 보다 더 바람직한 범국민적 행사는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김운용의 회고에 의하면 올림픽 유치 대표단은 어디서 부터 무엇을 시작해야하는지 유치자금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는게 적절한지도 잘 판단이 서질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같이 신청한 일본의 나고야 유치단은 도쿄올림픽과 기타 국제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 가능성이 우리보다 멀찍이 앞서 가고 있었다. 당시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나고야가 압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대다수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곤 하였다. 사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컬러 TV도 없는 상태였다. 과연 '한국에서 인공위성과 국제방

송센터를 연결해서 전 세계로 실황을 중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과 설비, 운영의 기술은 뒤받침하는가? 등의 수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준비, 설치, 경기운영능력 여부에 관한 용단폭격 같은 질문은 개발도상국 코리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범국민적인 성원과 준비위원들의 '밤잠없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52대27로 완벽한 승리, 우리는 1981년 '바덴바덴의 기적' 을 일으키며 '88서울올림픽' 유치를 하였다. 유치준비위를 구성한지 불과 2년만의 일이다. 그후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노태우와 박세직이 이끌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중견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경기의 주최 경험이 거의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사격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1988년의 서울올림픽 유치권을 따낸 것을 우리는 흔히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김운용은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

한다. "승리는 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승리를 움켜질 수 있는 필연적인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 (세계를 향한 도전, 2002)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주역들의 면면을 보면 노태우, 박세직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IOC로부터 올림픽훈장 금장 수여)을 비롯하여 조상호, 김종하, 김옥진, 최원석, 이건희(올림픽훈장 은장 수여) 그리고 정주영과 현대그룹이다. 성황리에 끝난 올림픽은 전두환 정권의 의도대로 국민의 단합과 국위선양에 한 몫을 하였다. 물론 반대한 국민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계 스포츠제전의 꽃인 올림픽을 우리도 해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였다.(당시 야당의 정치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인지는 몰라도 여러 구실을 잡고 반대를 하였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야당 총재들을 직접 만나서 올림픽의 중요성을 설명했을 정도로 개최 반대 또는 남북한공동개최 등 많은 이견들도 있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인류의 스포츠제전 올림픽은 서울 올림픽 전까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 1984년의 LA올림픽의 공산진영의

보이콧, 1980년의 모스크바올림픽의 서구진영 보이콧 등으로 반쪽 올림픽 경기가 치루어졌고, 그전의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 역시 아프리카의 36여개국이 불참하면서 이어져온 국제정세는 올림픽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기까지 하였다. 사마란치가 IOC위원장 직으로 처음 치르는 1988년의 올림픽은 그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념적으로 분단된 동양의 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무엇보다 사마란치의 의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역시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진가를 입증하려고 최대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영향력을 키운 김운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의 거목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 후 그는 태권도 뿐만 아니라 1997년의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1999년의 강원도 동계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및 한일월드컵, 2003년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th  net

SHOW THE MONEY 4



CONCERT

| TABLO | PALOALTO | SAN E | VERBAL JINT |
| JAY PARK | LOCO | AND MORE! |

NY | SATURDAY, SEPTEMBER 12 | 7:30PM @ BEST BUY THEATER

티켓 구입 및 문의: 718-460-0114



9월, 처음 만나는 최강 판타지 로맨스가 온다!



★★★★★ 감성 자극 흥행 메이커
 세계 2대 광고제 석권 광고 원작! 칸느 영화제 극찬!
 21인 1역의 한국 영화사상 전무후무한 멀티캐스팅!



뷰티인사이드 the beauty inside 9월 11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s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Tel. (617) 423-5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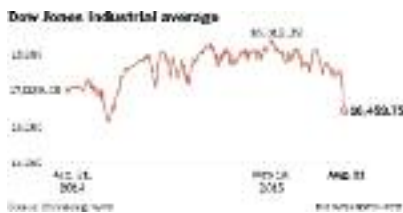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HEBEAUTYINSIDE-THEMOVIE.COM
 개봉 이벤트 및 영화 정보는 FACEBOOK.COM에서 **K MOVIE**를 검색하세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8) 주식시장 폭락

지난 금요일(8/21) 다우 존스가 530 폭락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358 이 내려갔습니다. 8월 들어 무려 1,000 이상 폭락으로 다우 존스 지수가 10% 하락한 것입니다. 투자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 경제 문제로 시작하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폭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것도 있기에 폭락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폭락한 이유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주식시장에 관한 사실 몇 가지를 함께 짚어 봅니다.

*2011 여름: S&P 500 지수가 19% 폭락했지만, 그 이후 주식 가치가 두(2)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주식 폭락을 포함한 것입니다.

*2003 초: 주식시장이 14%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4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꾸준히 올라가서 두(2) 배로 증가했습니다.

*1998 여름: 주식시장이 19% 폭락했습니다. 폭락한 이유는 석유 가격 하락, 아시아 화폐 위기 (이때가 한국의 IMF 구제금융),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 국가의 경제위기, 등의 이유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일 년 반 사이에 60%가 회복되

었습니다.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도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도박하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내기(betting)합니다.

1947년부터 해(일 년씩)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간(positive) 적인 72%였습니다. 주식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이 비율이 80%로 증가합니다. 10년 중 8년은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도박입니다. 여기에 10년 평균 수익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러한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쾌한 경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

나 몇 년 후에는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적이 35번 있었지만, 평균 10개월 이내로 원상 복구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하락은 투자할 좋은 기회입니다. 물건을 살 때 원래 가격을 내고 사는 것보다 같은 상품을 세일 가격으로 사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산투자자와 인내력(Diversification and Patience)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찌해야 하는가?

잠시 TV, 신문, 등 여러 미디어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 골프, 영화감상, 등으로 즐겁게 지내 시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법 칼럼 이민 업데이트 (2015년 9월 둘째주)

1. 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

9월 9일 이민국은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21세기를 대비한 이민개정' 행정명령 실행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신청하든 모든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는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또는 I-485) 또는 해외 미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신청이 됩니다. 이 마지막 절차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신청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부터 우선순위 날짜를 나타내는 chart가 기존의 한개에서 두개로 늘어납니다. 하나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라고 불리는 chart이고 다른 하나는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라고 불리는 chart입니다.

이 두 chart는 매달 이민신청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매달 새롭게 신청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현재 계류중인 이민신청서의 수, 그리고 거부, 포기 등 결정 전에 drop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등을 고려해서 매달 우선순위 날짜를 결정합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Visa Bulletin (매달 매달 둘째주에 발표됩니다)은 그 달에 어떠한 chart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Visa Bulletin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민신청서들의 상황을 Visa Bulletin에 매달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매달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무비자 입국자 (Visa Waiver Program 또는 ESTA)

국토안보부는 9월1일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9월1일부터는 모든 무비자 입국자의 정보를 INTERPOL의 여권분실 데이터와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분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EAD 카드 발급 지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EAD 카드를 생산하는 이민국 Kentucky 공장의 시스템 점검으로 한시적으로 영주권과 EAD 생산이 다른 이민국 facility로 이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승인후 2-3주면 생산과 배송이 이루어 지던 영주권이나 EAD 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또는 EAD 승인 통지서를 받으시고도 아직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번 9월중으로 마무리되며 기존의 시스템으로 곧 복구된다고 합니다. 단, 10월 이후에도 카드를 못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이민 관련 신청서 (forms)

이번 9월과 10월에 많은 이민관련 신청서들 (forms)의 유효기간이 만료 됩니다.

예를들면, 가족초청이민에 쓰이는 기존 재정보증 신청서 (form I-864)는 오는 10월7일 만료되며 10월7일 이후엔 새로운 재정보증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청서의 만료일은 각 신청서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기록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들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언제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서를 제출하시든 신청 전 반드시 신청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 version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시즌 개막을 앞둔 패트리어츠에 대한 의문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통산 4번째 수퍼볼 우승을 차지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부산한 오프 시즌을 보낸 패트리어츠는 전통적인 AFC의 강호 스틸러스를 개막전에서 상대하게 된다.

패트리어츠는 여전히 NFL에서 강한 팀으로 분류된다. 특히 연방 법원의 판결로 쿼터백 탐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철회되면서 올해도 패트리어츠는 수퍼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다.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패트리어츠 팀에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자.

1. 탐 브래디는 다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브래디는 역대 최악의 오프시즌을 보냈고 이는 프리시즌 경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물론 프리시즌 경기에서 브래디는 루키 오픈시브 라인맨의 보호를 받았고, 랍 그롱코스키나 줄리안 에들먼 같이 브래디가 선호하는 리시버도 경기장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쿼터백이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래디가 프리

시즌에서 기록한 22번 패스 시도에 10번 성공, 107야드 전진, 1개의 터치다운과 2개의 인터셉션, 37.5 패서 레이팅은 너무 저조한 성적이다. 브래디는 프리 시즌 동안 재판을 위해 뉴욕을 갔다 오느라 연습을 3일 빠졌고, 재판이 진행되는 약 6주 동안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습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브래디가 온전히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시즌이 개막하기 전까지 딱 1주일이다. 1주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브래디에게 충분한 시간이었을까?

2. 세컨더리는 엘리트 쿼터백과 리시버를 상대할 수 있을까?

패트리어츠의 세컨더리는 작년과 많이 다르다. 핵심 선수였던 대럴 레비스, 브랜든 브라우너, 카일 아링턴이 떠나고 올해는 없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 수퍼볼 우승의 영웅이었던 말콤 버틀러는 올해 오프 시즌 동안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다. 버틀러는 뛰어난 경기 감각을 선보이며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돋보였다. 그러나 언드래프트 프리에이전트로 패트리어츠에 입단한 버틀러가 프로 2년 차에 리그 최고의 코터백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2015 시즌이 시작되었다

스타 코너백들이 떠난 패트리어츠는 패스 수비에서 1:1 수비가 아닌 지역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빌 벨리치 감독이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올해는 더욱 기대가 된다.

3. 올해는 오픈시브 라인이 빨리 정리될까?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초반에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고전했다. 지난 시즌 초반 공격이 부진했던 이유는

랍 그롱코스키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오픈시브 라인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에 첫 5경기 동안 주전 오픈시브 라인맨을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 선수를 바꿔가며 실험을 했다. 6주차가 되어서야 오픈시브 라인이 정리되며 공격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태클 포지션은 선수층이 탄탄한 편이지만 센

터 자리가 의문이다. 확실한 주전 센터였던 브라이언 스토크가 뇌진탕 때문에 몇 주간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 끝에 단기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스토크는 최소 7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센터는 확실하게 정해진 선수가 없다. 브래디는 아직 실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오픈시브 라인의 보호를 받으며 경기에 임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LPGA] 이미향, 예비앙 1R 공동선두...박인비 공동 40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이미향(22·볼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예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25만 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선두에 올랐다.

이미향은 10일 프랑스 레방의 예비앙 리조트 골프 클럽(파71·6453야드)에서 끝난 대회 첫날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렉시 톰슨(미국)과 동타를 이룬 이미향은 공동선두로 대회를 시작했다. 지은희(29·한화), 제리나 필러(미국), 포나농 파트롬(태국·이상 4언더파 67타) 등 공동 3위 그룹과는 한 타차.

이미향은 투어 2년차 시즌인 지난해 미즈노 클래식에서 투어 첫승을 올린 신예다. 올 시즌에는 22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톱10'에는 두 번밖에 들지 못했다. 지난 3월 JTBC 파운더스컵에서 기록한 공동 3위가 시즌 최고 기록이었다. 이미향은 메이저 대회 첫승과 개인통산 2번째 우승의 전망을 밝게했다.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미향은 10번홀(파4)과 11번홀(파4)에

서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첫 4홀에서 버디 3개를 잡아 기세 좋게 출발했다. 14번홀(파3)에서 첫 보기를 범한 이미향은 15번홀(파5)에서 곧바로 만회했지만, 17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해 전반을 2언더파로 마쳤다.

후반에는 보기가 없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3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은 이미향은 6번홀(파4)에서 또 한 번 버디를 추가해 순위를 끌어올렸고, 마지막 9번홀(파5) 버디를 잡아 톰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미향보다 먼저 경기를 펼친 지은희는 전반에만 버디 3개와 이글한 개로 5타를 줄였지만 후반들어 보기 2개로 주춤하며 4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올 시즌 LPGA투어 신인왕 후보인 김세영(22·미래에셋)도 첫날 버디 4개와 이글 한 개,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로 호주교포 이민지(19·하나금융그룹) 등과 함께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슈퍼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첫날 주춤했다.



이미향(22·볼빅)

박인비는 1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았지만 퍼팅난조로 보기를 4개나 범해 1오버파 72타로 공동 40위에 머물렀다. 박인비는 오후조로 플레이하는 2라운드에서 반등을 노린다.

박인비와 동반 라운딩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한국명 고보경·캘러웨이)는 첫날 상위권에 올랐다.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2언더파 69타로 고진영(20·넵스), 신지은(23·한화) 등과 함께 공동 12위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역대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의 기록을 쓸 수 있다.

한편 '4대 투어 메이저 우승'의 진기록에 도전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첫날 최악의 부진을 보이며 컷 탈락의 위기에 놓였다.

전인지는 1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3개, 더블보기 2개, 트리플 보기 한 개 등으로 무려 8오버파 79타를 기록, 120명의 선수 중 공동 113위에 머물렀다.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20·롯데)도 첫날 2오버파로 부진해 공동 56위에 그쳤다.

starburyny@news1.kr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차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터(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 ~ 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